

‘애플 잡아라’... 삼성, 고공성장 스마트워치 맹 추격전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걷기·수영 등 7개종목 자동측정
39개이상 운동관리, 수면분석도

애플 ‘애플 워치’

2분기 아이폰 매출12% 하락세
워치 50% 성장 ‘역대최대 기록’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삼성전자



미 스마트밴드 4.

/샤오미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늘면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걷기, 달리기 등 기본적인 운동 기록부터 수면 분석과 스마트폰 연동까지 가능해 전화 걸고 받기, 메시지 보내기도 가능하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워치 판매량은 전년(2017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37%의 점유율을 보인 가운데 삼성과 애플이 각각 10%와 9%로 그 뒤를 이었고, 핏비트, 아마즈핏, 화웨이는 지난

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중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로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9%를 차지했다. 작년 3분기에 출시된 갤럭시 워치 시리즈가 전체 판매량의 50%를 차지했는데 길어진 배터리 수명과, 사용자환경(UI)을 조작할 수 있는 회전 베젤, 전형적인 원형 시계 형태 디자인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꾸준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

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스마트워치 신제품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출시했다. 달리기, 걷기, 자전거, 수영, 로잉 머신 등 7개 종목을 자동 측정하고 총 39개 이상의 운동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수면 분석도 가능하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입지

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 워치’는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한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애플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아이폰 매출은 12% 하락했으며,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낮은 판매량을 보였다. 매출 기여도는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애플워치는 2분기에 5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매자의 75%가 이 분기에 처음으로 애플 워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웨이는 스마트워치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화웨이의 소비자 부문 사업 중 스마트워치 사업부가 올해 유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특히 성장세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샤오미 제품도 국내에서 꾸준한 판매되고 있다. 샤오미에 따르면 미 밴드 시리즈의 한국 시장 출하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오는 20일 신제품 미 스마트밴드4를 국내 출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업체는 웨어러블 기기를 자사의 스마트폰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경기 불황에도... 프리미엄 추석선물 인기 LG V50, 듀얼스크린 배송지연 잠잠한 이유는

신세계백, 5스타 품목 21개로 확대
갈치·육포·곶감·견과류 등 추가



신세계 명절 선물세트 매장(위)과 신세계 명절 선물. /신세계백화점

남과 다른 차별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한정 물량만 생산되는 프리미엄 명절 선물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이 명절 선물을 프리미엄과 일반 선물로 나눠 살펴본 결과, 명품으로 분류되는 5STAR(프리미엄군/신세계가 산지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품목별 명절 선물) 상품들의 신장률이 일반 선물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추석선물 매출은 한 자리 수 성장에 그친 반면, 프리미엄 품목들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고신장하며, 전체 신장률의 2~3배를 훌쩍 넘는다.

그동안 신세계백화점은 매년 명절 행사에서 최상급의 프리미엄 상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0만원의 명품 한우세트(명품 한우 스페셜)는 최상위 등급 한우에서 소량 생산되는 최고급 부위로 만들어 20세트 한정 판매한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본판매 시작 후 3일 만에 모두 판매됐다. 또 1마리당 28cm가 넘는 특대 봄조기로 구성된 120만원의 명품 재래굴비(명품 재래굴비 특호)도 매년 최대 30~50세트가 준비되지만 한우와 마찬가지로 행사 초반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러한 프리미엄 명절 선물 인기로 신세계백화점은 올 추석 5 STAR 품목을 지난해 16개에서 21개로 5개 품목을 늘린다. 또 기존 한우, 굴비, 과일로만 꾸려졌던 5STAR에 처음으로 갈치, 육포, 곶감, 견과류를 추가했다. 먼저 40만원에 달하는 ‘명품 한우 육포’를 선보인다. 1++등급 국내산 한우 우둔과 함께 값이 비싸 주로 구입용으

로만 판매되던 채끝을 엄선해 구성했다. 기존 육포에 비해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굴비만큼 비싼 명품 갈치도 내놓는다. ‘명품 제주 동갈치’ 세트로 청정 제주에서 살집이 오르는 겨울에 어획한 제철 갈치 중에 특대 사이즈만 선별한 것으로 가격은 60만원이다. 일반적인 선물세트에 사용되는 갈치보다 2~3배 큰 특대 갈치만 엄선해, 머리와 꼬리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몸통 부위로만 구성했다.

이밖에 ‘명품 곶감 세트’와 제주 특산물인 우도 땅콩까지 엄선한 ‘명품 견과 세트’도 마련해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김신진 상무는 “추석 선물 시장에서도 명품으로 구분되는 프리미엄 선물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산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품목을 발굴해 명절 선물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전자, V50 판매량 예상보다 많아
듀얼스크린 물량부족... 배송에 2달
‘무료증정’에 배송 기다리는 분위기

LG전자 V50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무료 증정품인 듀얼 스크린 배송도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반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LG 스마트폰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도 감지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번달까지 V50 구매자들에 듀얼 스크린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2달에 달하는 발송 대기 기간이다. LG전자는 8월 V50 구매자에 듀얼스크린 배송까지 2개월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전에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배송 연기를 공지하기도 했다. 듀얼스크린은 V50의 주변 기기다. LG전자가 아닌 협력사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구매하면 20만원 상당이다.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 고지에 유쾌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V50이 듀얼 스크린을 주요 기능으로 내세웠던 만큼, 제



지난 20일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LG V50 생큐 게임 페스티벌에 방문한 관람객이 LG 듀얼 스크린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LG전자

품 핵심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 기 때문이다. LG전자가 조만간 V50 후속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단, 대부분 소비자는 배송 지연에도 개의치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 항의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소비자들은 배송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듀얼 스크린이 무료 증정이라서다. 20만원 상당 액세서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 기간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가장 뚜렷하다. 듀얼스크린 활용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다. V50과 듀얼 스크린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IT 기기로 주목받는 상황, 구글 스타디아 등이 올해 말 론칭을 준비 중이다. V50 단일 기기 만족도도 높다. V50은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는 등 플래그십 성능 갖추면서, 무게를 185g으로 최소화한 제품이다. 그동안 LG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었던 소비자들도 호평하면서 LG 스마트폰 부활 가능성도 점쳐진다. LG전자 관계자는 “V50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리면서 듀얼스크린 공급에 다소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라며 “배송 연기 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만큼, 실제 공지된 기간보다는 더 빨리 듀얼스크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냉장고로 SNS 업로드... ‘LG 냉장고’ 주목

LG전자, 스마트 기능 자연스레 알려
LG전자 냉장고 ‘스마트’ 기능이 새삼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로서’가 LG전자 냉장고로 SNS에 업로드한 글에 네티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시물 내용은 단순하다. 모친이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해서 냉장고로 글을 업로드했다는 얘기가.

사연은 이렇다. 도로서는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열성팬으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해왔지만, 전자 기기를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는 자녀를 걱정된 모친이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면서 돌연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던 것이다. 도로서는 오랜 고민 끝에 냉장고에서도 SNS에 접속할 수 있음을 떠올렸다. 그리고 냉장고를 이용해 지인들에 사정

을 설명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도로시를 응원한다는 의미로 해시태그 #FreeDorothy를 만들기도 했다. 도로서도 스마트냉장고로 감사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남겼다. LG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사 냉장고 스마트 기능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데 성공했다. 스마트 기능을 알고 있던 소비자도 이번 일을 통해 실제 쓸 수 있음을 확인했다. 홍보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